

## 『풍공유보도략(豐公遺寶圖略)』의 복식사적 의미

장 인 우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

### Historical Meaning of *PungGongYuBoDoRyak*

In-Woo Chang

Professor. Dept. of Fashion Industry, Incheon University

(투고일: 2009. 9. 17, 심사(수정)일: 2009. 12. 2, 게재확정일: 2009. 12. 16)

####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Punggongyubodoryake*. *Punggongyubodoryak* was the records and pictures written by *Ohgyeongmum*(吳景文, Painter) and *Gangbonpungeon*(岡本豊彥, a Japanese painter, 1773~1745). in 1832. Those records and pictures were about the gifts which Korea's King(宣祖, 1567-1608) sent to *Doyotomi Hideyosi*(豊臣秀吉, *Pungsinsugil*) in 1590. Most of the gifts were of the Korean costume, which meant that Korea recognized *Doyotomi Hideyosi* as the new general of Japan, *Tokugawa Shogunate*(幕府將軍). The pictures of every Clothing in *punggongyubodoryake* described forms of every cloth and delineated ornamental patterns and sizes of clothing as closely as actual, they were clothes of the Middle period of Chosun. the author of the study inferred that it would be one of the important materials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traditional costume. Among the clothes, there were several *danryeongs*(단령, ceremonial coat), *okgwan* (玉冠 woman headdress with) and *paeok*(佩玉, pendants with jade stings) and *choongdan*(中單 ceremonial undercoat) and *Sang*(裳, ceremonial Skirts for man), *gyeontongsuseulran* (肩通袖膝襯, Chinese coat) was recorded in *punggongyubodoryake*. they were not a set of clothes for ceremonial costume but a mixture of men's and women's costume, of korean and abroad styles. the author inferred that this phenomenon was actually a good proof that the gifts were sent to *Hideyosi* only as courtesy, which meant for downgrading the receiver.

Key words: Punggongyubodoryake(풍공유보도략), Doyotomi Hideyosi(풍신수길), Danryeongs(단령), Okgwan(옥관), Gyeontongsuseulran (肩通袖膝襯), Sunjo(宣祖)

## I. 서언

『풍공유보도략(豐公遺寶圖略)』은 조선국왕 선조(宣祖)가 1590년(萬曆18) 일본의 풍신수길(豊臣秀吉)에게 조선통신사를 파견하면서 보낸 선물에 대하여, 1832년(天保3, 壬辰) 일본 승려 진정(眞靜)이 목판에 새겨 만든 목판본 책이다. 이 책의 내용은 선조가 보낸 국서와 선물의 목록인 별폭 그리고 별폭에 기록되지 않은 복식그림이다. 이 그림들은 오경문(吳景文)과 오카모토 토요히코(岡本豊彦)가 그렸다.

본 『풍공유보도략』은 1590년이란 절대연대를 지닌 조선중기복식의 도식자료로서 의미를 지니며 이는 동시기의 출토복식과 비교가 가능하며 임란전후 출토복식의 시대고증에 있어서 기준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하는 사신(使臣)이었던 조선통신사는 정치외교는 물론 문화사절단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조선통신사에 대한 복식사적 연구는 통신사 행렬을 그린 행렬도(行列圖)와 선물의 물목인 별폭(別幅)의 내용을 통한 당시 조선과 일본의 교역품<sup>1)2)3)4)</sup>에 관한 연구와 통신단원이 착용한 의복<sup>5)6)</sup>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본 『풍공유보도략』의 경우도 이미 선조대의 왕실복식 측면에서의 박성실의 연구<sup>7)</sup>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임진왜란 발발 직전인 1590년, 왜 조선이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살피고, 또한 200년 전의 이웃나라의 선물이었던 복식들을 200년이 지나도록 보관하고 기록하여 『풍공유보도략』을 제작하게 된 배경과 의복의 세세한 부분까지 묘사하고 기록한 글과 도식의 자료적 의미를 밝히고, 이러한 도식에 묘사된 의복의 성격을 파악하여 동시기 실물자료인 출토복식과 비교함으로써 조선중기 복식문화의 이해를 돋고자 한다.

## II. 『풍공유보도략』의 배경

### 1. 1590, 조선통신사의 파견

일본은 막부의 장군이 바뀔 때마다 조선에 사신을

보내어 통신사의 파견을 요청하였으며 조선은 이에 대한 답방으로 사신을 파견하였으며<sup>8)</sup>, 이러한 조선통신사는 조선과 일본의 교류에 있어서 정치나 외교 외에 문화를 일본에 전수하는 문화사절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통신사는 조선이 개국(1392)한 이후 임진왜란(1592)발발까지 60여회의 조선통신사가 파견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443년(세종25)이래로 단절되었다<sup>9)</sup>. 세종 이후 성종5년(1474)과 세조5년(1459)에 조선통신사가 파견되었으나 풍랑으로 인해 일본에 도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실질적으로 본 『풍공유보도략』에 나타난 물품을 전달한 조선통신사는 150여년만의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이었다.

이렇게 단절되었던 조선통신사는 일본을 통일한 풍신수길에 의해 재개되었다. 풍신수길은 1587년 굴강광(橘姜廣)을 통신사 파견의 임무를 띄우고 조선에 사신으로 보냈으나 성사시키지 못하고 돌아오자 처형시켰으며, 이어 1588년에 사신 평의지(平義智)를 사신으로 보내 통신사의 파견을 요청하였으나, 조선은 변민(邊民)하고 반민(叛民)한 조선인들의 쇄환(刷還) 등의 무리한 요구로 이를 거절하였다<sup>10)</sup>. 이에 평의지(平義智)와 현소(玄蘇)가 조선의 요구대로 조선을 배반하고 일본에 귀화한 조선인 100여명을 데리고 옮겨 따라<sup>11)</sup>, 선조는 마침내 1590년 3월 현소와 평의지와 함께 정사 황윤길(黃允吉), 부사 김성일(金誠一), 종사관 허성(許成)을 임명하여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었다. 여기서 통신사파견에 대한 수길의 강한 의지와 통신사를 파견하지 않고자하는 선조의 의사를 엿볼 수 있다. 이때 선조는 다음과 같은 국서를 수길에게 보냈다.

‘朝鮮國王李昰 封書  
日本國王 殿下  
春候和煦 動靜佳勝 遠傳大王一統六十餘州 雖欲速  
講信修睦 以敦隣好 恐道路湮晦 使臣行李 有淹滯  
之憂歟 是以多年思而止矣 今令與貴介 遣黃允吉金誠  
一許箴之三使 以致賀辭 自今以往隣好 出于他上 幸  
甚 仍不腆土宜 錄在別幅 庶幾笑留 餘順序珍齒不宣  
萬曆十八年三月  
朝鮮國王李昰’

조선국왕 이연 봉서  
일본국왕 전하  
봄기운 화창한 날 기거(起居)함에 가승(佳勝)하기

를 바랍니다. 멀리서 대왕께서 60여 주(州)를 통일 하였다고 전해 듣고서, 속히 강신(講信)을 행하고 화목을 도모하여 선린우호(善隣友好)를 돈독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도로가 막히고 유실되어 사신들이 활동하다가 오랫동안 지체되는 일이 생길까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여러 해 동안 생각만 하고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귀국의 사신과 더불어 횡윤길 김성일 허성 3명의 사신을 보내어 치하하는 말을 전하니, 이로부터 선린우호(善隣友好)함이 다른 때보다 좋아진다면 매우 다행입니다. 이에 절기에 몸을 잘 보중하기를 바랍니다. 할 말을 다 하지 못합니다. 변변치 않은 토산물을 보내면서 목록은 별도로 보내니 웃으며 받아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은 절기에 몸을 잘 보중하기를 바랍니다. 할 말을 다 하지 못합니다.

선조는 국서에서 일본의 60주를 통일하고 막부의 장군이 된 풍신수길에게 전하(殿下)의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일본의 왕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조선과 일본이 평화로운 이웃국가의 관계를 이루자는 내용의 평화조약 강신(講信)의 이웃국간간의 관계(善隣友好)를 돈독히 하자는 뜻을 밝히고 있으나, 불선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조선과 일본이 선린(善隣)의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 이때 파견된 조선통신사는 200명 규모이었으며, 조선을 떠나 돌아오는데 13개월의 긴 여정이었다<sup>12)</sup>. 이러한 사절단의 규모는 이후 300-500명에 준하는 이후의 조선통신사<sup>13)</sup>에 비할 때 비교적 작은 사절단이었다.

이처럼 조선통신사의 무리한 파견을 풍신수길이 강조한 이유는 일본통일후 일본내 천황가(天皇家)와 공가(公家) 및 승려와 일반인들에게 이웃국가 조선이 풍신수길을 일본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시위하고자하는 수길의 정치적 목적<sup>14)</sup>이었음을 알 수 있다.

## 2. 『풍공유보도략』의 제작

1832년 『풍공유보도략』 후에 기록된 제작배경은 다음과 같다.

‘題遺寶圖略後

聚樂臺榭 久已委灰塵 桃山城樓<sup>15)</sup>一敗之後 屬樵牧之所有 不唯聚樂與桃山而已 豊國神廟亦復廢壞而無存 赫赫霸業 茫乎不可尋 彌陀峰頭<sup>16)</sup> 徒聞松風之颯颯焉 呴呼 二百餘年之迹 爲二百餘年之夢 生于二百餘年之後 而可懷二百餘年之古者 其此遺寶歟 遺寶若干 服飾與器用 金玉燦目 錦繡如林 當年威耀之盛足以想像焉 若夫銅雀之瓦 乾德之鏡 此其瑣瑣 猶以

爲懷古好事之珍翫 況此文祿<sup>17)</sup> 慶長<sup>18)</sup>之豪具 長在我王之府庫而傳之 則自此以往 雖歷千萬年 而終不朽矣 但品類之夥 不暇枚舉 此所以圖略不可以無焉耳 天保<sup>19)</sup>壬辰春三月  
前日吉社 司徒四位下祝部 希聲 謹撰”

취락정<sup>20)</sup>도 이미 오랜 전에 젓더미가 되었고, 도산산성(桃山城樓)은 폐전한 뒤에 이름없는 초동과 목동의 소유가 되었네. 취락정과 도산산성뿐 아니라, 풍신수길(豊臣秀吉)의 신묘도 이미 폐허가 되어 남아있는 것이 없다. 빛나는 폐업(霸業)도 사라져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되었으며, 아미타봉(阿彌陀峰)에는 다만 솔바람 소리만 쓸쓸하다. 아! 이백여년의 자취가 이백여년의 꿈이 되었구나. 이백여년 후에 태어나 이백여년 전의 옛일을 회고할 수 있는 것은 전해 내려오는 유물이 있어서 인지! 유물(遺寶)에는 약간의 복식(服飾)과 기물(器用), 그리고 휘황찬란한 금옥(金玉)과 숲처럼 빛나는 수놓은 비단이 당시의 위세와 빛나는 성대함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저 동작대(銅雀臺)의 기와나 건덕(乾德)시대의 거울 같은 것은 여기에서 작은 물건이지만, 옛 자취를 돌아보기 좋아하는 사람이나 호사가(好事家)들은 진기하게 여긴다. 하물며 이 당시 문록(文祿)·경장(慶長)의 호화스러운 물건들이 오랫동안 우리 왕실의 창고에 있으니, 이를 전한다면 지금부터 이후로 천년만년이 지나도 끝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물건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없기에 여기에 대략 그림으로 대신하지 않을 수 없을 뿐이다. 천보(天保) 임진(壬辰 1832)년 봄 삼월 옛 전일 길사(吉社) 사도(司徒) 4위(四位) 하축주(下祝部) 희성(希聲)이 삼가 짓는다.

저자는 『풍공유보도략』 후에서 풍신수길이 거쳐하였던 누각 취락대도, 복건성(도산성루) 그리고 수길과 도쿠가와의 전투가 있었던 아미타봉도 200년이 지난 지금은 폐허로 사라져 자취를 알 수 없지만 2백년이 지난 오늘 2백전의 일을 알 수 있는 것은 과거를 말하는 유물이 있어 가능하다는 유물의 존재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유물들은 마치 수길시대의 성대함에 비견될 만큼 금과 옥 그리고 수놓은 비단으로 된 복식과 기물 등의 화려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렇듯 의미있고 가치있는 유물들을 자손 대대로 전달하기 위하여 사라지지 않는 글과 그림으로 기록하게 되었다고 그 제작배경을 밝히고 있다.

### III. 『풍공유보도략』에 나타난 복식과 물목

『풍공유보도략』의 목록과 별록에서 복식류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일본에서 작성한 목록에서는 글과 그림으로 각 의복의 앞뒤 형태와 장식된 문양을 세밀히 묘사하고 있으며, 조선에서 기록한 별록에는 선물의 종류와 양을 기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풍공유보도략에 묘사된 글과 도식은 자료적 의미를 담고 있어 각 쪽을 <그림 1>에서 <그림 20>으로 언급하였으나 그림의 출처에 있어서 본 자료는 진성이 만들고 오경문과 오카모토 토요히코가 그렸으나 각 그림이 누구의 그림인가는 알 수 없으며, 또 일본의 목판본 고자료임에 따라 오늘날의 쪽의 개념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이후 그림의 출처에 있어서 저자는 진성으로 그리고 책이름만을 언급하였다).

#### 1. 목록에 글과 그림으로 묘사된 복식류

의복의 개별설명에 앞서 목록(目錄)에서 ‘天保三年壬辰三月新鐫 豊公遺寶圖略目錄 卷上 勅賜 御直衣 御位袍 蹤觸御下襲 紅御單衣 御表袴 御大口袴 御笏 吳景文 謹寫 岡本豊彦<sup>21)</sup> 謹寫..’와 같이 의복들을 어직의, 어위포, 척축어하습, 홍어단의, 어표고, 어대구고, 어홀 등 한자 ‘어(御)’를 옷의 명칭에 첨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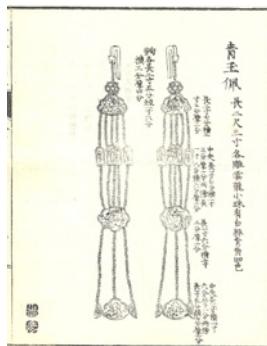
여 왕의 옷임을 암시한 반면, 그림에서는 이러한 일본옷의 명칭이 아닌 조선사람의 옷(朝鮮人衣), 관(冠)의 衣, 상(裳) 등 조선옷임을 뜻하는 통칭적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옥페’는 조선에서는 ‘페옥’이라 칭하는 것을 볼 때 이 역시 조선에서의 명칭이 아닌 보편적인 명칭으로 구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옷들은 일본왕의 옷이나 조선사람의 옷(朝鮮人衣)임을 암시한다.

#### 1) 옥관(玉冠)

<그림 1>에 의하면 ‘高七寸花紋大徑九寸 小徑五寸 或三寸五分 毛布上以五色細珠及真珠綴之....’그림에서 관은 5개의 꽃잎과 그 위에 작은 꽃잎구성이 보이며, 관의 높이는 7촌(17.5cm)이며, 큰 꽃문양의 직경은 9촌(22.5cm)이며, 각 꽃잎은 5촌과 3촌5푼이다. 모자의 재질은 毛布이며, 이러한 모직물위에 오색의 가는 구슬과 진주로 이어졌다는 기록되어 있으며, 그림에서 수(壽)와 복(福)으로 장식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외 그림에서 모자의 중앙에는 류(旒)와 같은 것이 늘어져 있으며, 매 류의 끝에는 구슬 혹은 진주의 원형장식도 표현되어 있다. 이 옥관을 박성실은 여자의 관으로 보았으며, 조선시대 왕가부인의 예관<sup>22)</sup>과 조선시대 신부들의 화관에서 그 유래를 들어 여자의 것으로 유추하였다.



<그림 1> 진성, 玉冠,  
풍공유보도략



<그림 2> 진성, 青玉佩,  
풍공유보도략



<그림 3> 진성, 朝鮮人衣,  
풍공유보도략



<그림 4> 진성, 衣背,  
풍공유보도략

## 2) 청옥佩(青玉佩)

조선에서는 패옥이라 이른 것을 청옥패라 하였으며, <그림 2>에 의하면 청옥패는 한쌍이며, 걸쇠와 구름과 용이 조각된 옥조각 4단 그리고 흰색과 녹색 그리고 청색과 황색의 4색의 구슬로 이루어진 류로 묘사되어 있다. 걸쇠와 첫째옥편 사이의 류는 9-10개의 구슬류 한줄이며, 첫째와 둘째옥편사이의 류는 15-17개의 구슬로 된 류 5줄이며, 둘째와 셋째 옥편 사이의 류는 19-20개의 구슬로 된 류 5줄이고, 셋째와 넷째옥편사이의 류는 33개의 구슬로 된 류 3줄로 구성되었다. 청옥패는 '鉤各長二寸五分短一寸六分, 橫三分厚四分, 長二尺三寸各雕雲龍小珠有白綠青黃四色, 長二寸七分橫二寸三分厚一分, 中央長一寸七分橫一寸三分厚一分, 兩傍長一寸八分橫六分厚一分, 長一寸六分橫二寸三分厚一分, 中央長二寸橫一寸六分厚一分, 兩傍長一寸五分橫七分厚一分'와 같이 걸쇠의 크기는 긴 부분은 2촌5푼, 짧은 부분은 1촌6푼, 가로는 3푼, 두께는 4푼이라 하였다. 옥편가운데 위의 것은 하나의 조각이며 길이가 2척3촌이며, 가장 위의 옥조각은 하나의 조각이며, 길이는 2촌7분이며, 가로는 2촌3분이고, 두께는 1푼이다. 다음 옥조각은 3개로 중앙의 것은 길이가 1촌7분이며, 가로는 1촌3푼, 두께는 1푼이며, 양 옆의 조각은 길이는 1촌8푼, 가로는 6푼, 두께는 1푼이다. 세번째 옥조각은 하나의 조각으로 길이는 1촌6푼, 가로는 2촌3푼, 두께는 1푼이다. 마지막 옥조각은 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의 것은 길

이가 2촌, 가로는 1촌6푼, 두께는 1푼이며, 양옆조각은 길이가 1촌5푼, 가로는 7푼, 두께는 1푼이다. 이러한 옥패는 현존하는 왕실유물 가운데 경산(經山) 정원용(鄭元容)의 패옥<sup>23)</sup>과 색과 형태에서 유사하나, 유물에서는 옥편에 조각되지 않은 차이를 볼 수 있다<sup>24)</sup>. 따라서 조선중기까지 왕실의 패옥은 조각되었던 것으로 유추된다.

## 3) 조선 사람의 옷(朝鮮人衣)

<그림 3·4>에 의하면 '赤地金欄牧丹唐草模樣麒麟前後同長四尺一寸 袖長一尺三寸三分, 自背縫至袖口三尺四寸'와 같이 붉은 단령이며, 금박의 모란당초와 기린문양이 앞뒤가슴과 양소매의 어깨부위에 견통수슬란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옷의 길이는 4척1촌, 소매는 곡선소매<sup>25)</sup>이며 소매길이는 1척3촌3푼이고, 화장은 3척4촌이며, 여밈은 고름으로 묘사되었다.

## 4) 동의(同衣)

<그림 5·6>에 의하면 '赤地紋紗模樣麒麟前後同, 長四尺一寸 袖長一尺五寸五分, 背縫至袖口三尺三寸八分'와 같이 붉은 문사(紋紗)로 된 단령이며, 사각의 기린홍배가 앞뒤에 장식되어 있으며, 길이는 4척1촌이며, 소매길이는 1척5촌5푼이고, 화장은 3척3촌8푼이며, 여밈은 고름이다.



<그림 5> 진성, 同衣,  
풍공유보도략



<그림 6> 진성, 衣背,  
풍공유보도략



<그림 7> 진성, 同衣,  
풍공유보도략



<그림 8> 진성, 衣背,  
풍공유보도략



〈그림 9〉 진성, 同上,  
풍공유보도략



〈그림 10〉 진성, 衣背,  
풍공유보도략



〈그림 11〉 진성, 同上,  
풍공유보도략



〈그림 12〉 진성, 衣背,  
풍공유보도략



〈그림 13〉 진성, 同上,  
풍공유보도략



〈그림 14〉 진성, 衣背,  
풍공유보도략



〈그림 15〉 진성, 同上,  
풍공유보도략



〈그림 16〉 진성, 同衣,  
풍공유보도략

### 5) 동의(同衣)

〈그림 7·8〉에 의하면 ‘赤地蓮華唐草金欄模樣鳳凰長三尺九寸, 袖長一尺三寸五分, 自背縫至袖口 三尺四寸三分’와 같이 붉은 단령이며, 금박의 봉황흉배가 장식되었으며, 옷의 길이는 3척9촌이며, 소매길이는 1척3촌5푼이고, 화장은 3척4촌3푼이며, 여밈은 고름이다.

### 6) 동상(同上)

〈그림 9·10〉에 의하면 ‘赤地獅子雲紋, 長四尺, 袖長一尺三寸, 自領中至袖口三尺六寸五分...’과 같이 붉은 단령이며, 사자문과 구름문이 앞뒤가슴과 등 그리고 어깨와 무릎부위에 장식되어 있으며, 길(胴) 양옆에 맞주름형태로 보이는 사각형무가 보이며, 길이는 4척이며, 소매길이는 1척3척이고, 화장은 3척6촌5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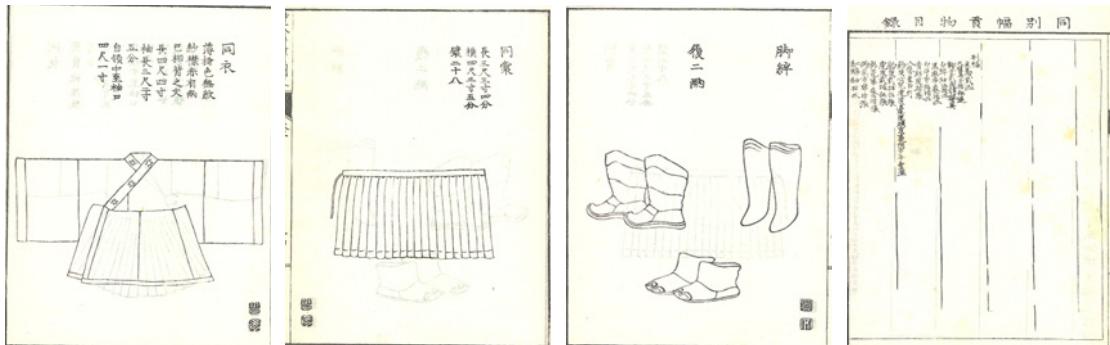
이며, 여밈은 고름이다.

### 7) 동상(同上)

〈그림 11·12〉에 의하면 ‘赤地雲地紋模樣龍前後同, 長四尺三寸五分, 自領中至袖口3尺7寸 袖長一尺三寸五分’과 같이 붉은 색의 운문단의 단령이며, 용문양장식이 앞뒤가 동일하게 어깨와 가슴 그리고 무릎에 견통수슬란으로 장식되었으며, 길이는 4척3촌5푼이며, 화장은 3척7촌이고, 소매길이는 1척3촌5푼이며, 여밈은 고름이다.

### 8) 동상(同上)

〈그림 13·14〉에 의하면 ‘赤地顯紋紗摸樣龍前後同, 長四尺二寸五分, 自領中至袖口三尺七寸五分, 袖長一尺四寸三分...’과 같이 붉은 현문으로 된 단령이며, 용



〈그림 17〉 진성, 同衣,  
풍공유보도략

〈그림 18〉 진성, 同裳,  
풍공유보도략

〈그림 19〉 진성, 脚絆,  
풍공유보도략

〈그림 20〉 진성, 목록,  
풍공유보도략

문양이 앞뒤에 견통수슬란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길이는 4척2촌5푼, 화장은 3척7촌5푼이고, 소매의 길이는 4척2촌5푼이며, 여밈은 고름이다.

### 9) 동상(同裳)

〈그림 15〉에 의하면 '萌黃地模樣鱗鳳 長三尺三寸四分 橫四尺三寸五分 襪二十八'와 같이 누런 명주치마에 기린과 봉황문양의 장식이 무릎부위에 보이며, 길이는 3척3촌4푼이며, 가로는 4척3촌5푼이며, 주름은 28개이다.

### 10) 동의(同衣)

〈그림 16〉에 의하면 '萌黃地無紋 紗襟赤有兩 己相背之文 長四尺四寸 袖長三尺二寸五分 自領中至袖口四尺一寸...'로 동의는 누런 명주 철릭이며 옷깃은 칼깃이며, 길이는 2척5촌5푼이며, 화장은 4척이고, 소매의 길이는 6촌7푼이며, 주름은 앞에 25개와 뒤에 24개가 있으며, 여밈은 2개의 고름이다.

### 11) 동의(同衣)

〈그림 17〉에 의하면 '薄桺色無紋 紗襟赤有兩 己相背之文 長四尺四寸 袖長三尺二寸五分 自領中至袖口四尺一寸...'에 보이듯 얇은 야자나무 색 명주의 중단에 붉은 선(襯)의 상의부분에만 불(黻)문양이 묘사되어 있으며, 길이는 4척4촌이며, 소매 길이는 3척2촌5푼이고, 깃중앙에서 소매까지 즉 화장은 4척1촌이다.

### 12) 동상(同裳)

〈그림 18〉에 의하면 '長三尺三寸四分 橫四尺三寸五分 襪二十八...'과 같이 치마이며 길이는 3척3촌4푼이며, 가로는 4척3촌5푼이고, 주름이 28개이다.

### 13) 각반(脚絆)

〈그림 19〉는 각반과 리의 도식이다.

## 2. 별폭에 나타난 물목

앞의 목록과는 달리 〈그림 20〉은 선물의 물목과 양을 기록한 별폭(別幅)이며 이에 의하면 '良馬貳匹 大鷹子拾伍連 鞍子貳面諸緣具 白綿紬伍拾匹 黑麻布 參拾匹 白苧布伍拾匹 青斜皮<sup>26)</sup>拾張 人蔘壹百斤 豹皮 心兒虎皮邊兒獺皮<sup>27)</sup>裏阿多介<sup>28)</sup>壹坐 豹皮貳拾伍張 彩花席參拾張 滿花方席<sup>29)</sup>拾張 紅綿紬拾匹 清蜜拾壹壺 白米貳陌頤 海松子六碩' 양마2필, 큰마 15필, 말안장2면과 관련도구 백명주50필, 흑마포 30필, 배저포50필, 청사과10장, 인삼일100근, 표범가죽으로 가운데를 하고 호랑이 가죽으로 가장자리를 두르고 염소가죽으로 속을 한 아다개1좌, 표범가죽25장, 호랑이가죽25장, 채화자리 30장, 만화방석10장, 홍면주10필, 청밀11항아리, 백미2백석, 잣6석 등이다.

이처럼 물목은 의류와 식품에 관한 것이었으나 대부분이 의료이었다. 의료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염색하지 않은 면과 견 그리고 마포(綿,紬,麻)이며, 동물

가죽(虎皮,豹皮,藍斜皮,狹皮)과 뜻자리(彩花席,滿花方席)와 염색명주 등이다. 이러한 종류는 이전의 물목에서도 반복되고 있어 조선과 일본과의 교역품임을 짐작할 수 있으나, 본 통신사의 물목의 양이 이전의 통신사의 것에 비하여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sup>30)</sup>. 또한 중국에 보내는 물목은 자색과 녹색 청색 등의 염색된 비단(紫綿紬, 綠綿紬, 黃柳青綿紬, 布子, 人情紫紬, 綠紬)인 점과 뜻자리(雜彩花席, 邊兒寢席)와 장신구(繡囊兒, 針家兒, 簪牙兒, 葫蘆兒, 虎牙兒, 青瓜兒) 등<sup>31)</sup>으로 그 내용과 양에 있어서 달리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이 같이 유물은 옥관(玉冠)과 단령(團領)과 철릭(綴翼) 그리고 중단 상(裳)2벌, 그리고 옥佩(玉佩), 각반(脚絆)과 화(靴) 등이며, 이 가운데에서 여자의 화관으로 보이는 옥관과 중국의 옷인 견통수슬란(肩通袖膝襯)장식 등도 보인다. 많은 수의 단령은 상복(常服) 중심임을 반영한다. 선물(1590)에서 기록(1832)에 이르기까지 약2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소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일본에서 보물로 보관하였던 것으로 볼 때, 조선에서 보낼 때 예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에서는 격하시켰던 것으로 유추한다. 이러한 격하현상은 조선통신사의 의복<sup>32)</sup>에서도 이미 볼 수 있었다. 반면 이를 일본에서는 지극한 정성으로 보관하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일본에서 이 옷들을 얼마나 중요히 여기었는지를 알 수 있다. 조선인 일본에 보내는 물목은 원자재 중심인 것으로 중국에 보내는 물목과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 IV. 『풍공유보도략』에 나타난 의복과 문양

『풍공유보도략』에서 도식으로 묘사된 단령과 철릭 그리고 중단(中單) 가운데 동시기 실물인 출토복식에서는 단령과 철릭만을 볼 수 있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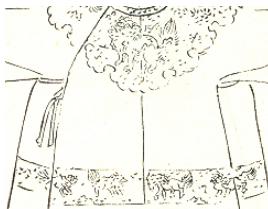
단령은 명칭 ‘衣’와 ‘上’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형태와 문양 구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문양은 <그림 3,5,7,9,11,13>에서와 같이 기린(麒麟)과 용(龍) 그리고 봉황(鳳凰)과 사자(獅子)문양이며, 앞의 ‘衣’의 단령에서는 기린과 봉황문이 보이는 반면 ‘上’의 단령에는 용과 사자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여기서 <그림 5>에 보이는 동의의 기린문과 <그림 7>에 보이는 봉황문은 사각의 흥배로 표현된 반면 이외의 용과 기린 그리고 사자문과 용문양은 중국의 견통수슬란(肩通袖膝襯)으로 장식되어 있다. 동시기 출토단령에서의 흥배의 문양은 장기정씨(彙)묘 단령에서 보이는 공작홍배와 과평윤씨묘 출토단령의 노사(鷺鷮)홍배, 조경묘와 김여온묘 출토단령의 해치홍배<sup>33)</sup> 등이다. <그림 21·22>은 견통수슬란의 가슴과 무릎에 묘사된 용문양이다. 앞길은 왼쪽어깨에서 가슴을 향하고 있으며<sup>34)</sup>, 뒷길에서는 오른쪽어깨에서 가슴을 향하며, 무릎장식에서는 앞뒷중심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되게 묘사되었다. <그림 23·24>는 견통수슬란에 묘사된 사자문양이며 머리가 둥근형태임을 볼 수 있으며 가슴 즉 앞길에 나타난 사자는 머리가 오른쪽이며 꼬리는 왼쪽에 위치하며 머리는 꼬리쪽을 향한 채 앉은 자세이며, 뒷길에 나타난 사자는 머리가 왼쪽에 위치하며 머리는 꼬리를 향한 채 앉은 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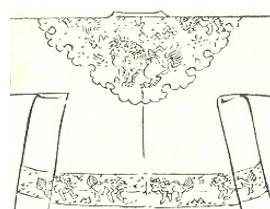
<그림 21> 진성, 同上,  
풍공유보도략



<그림 22> 진성, 衣背,  
풍공유보도략



<그림 23> 진성, 同上,  
풍공유보도략



<그림 24> 진성, 衣背,  
풍공유보도략

다. 무릎장식에 보이는 사자문은 앞뒤중심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서서 움직이는 자세를 볼 수 있다. 이는 김완이나 남이홍의 사자문이 머리를 앞을 향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반면 명대의 사자홍배와 유사한 모습임을 볼 수 있다. 또한 본 사자문은 우리나라 회화자료에 나타난 김완(金完, 1577-1635), 남이홍(南以興, 1576-1627), 신경유(申景裕, 1581-1633), 김중만(金重萬, 1712-1728), 신응주(申應周, 1747-1804)<sup>35)</sup> 등의 사자문양가운데 시대가 가장 앞선 사자문의 그림자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단령은 총길이와 소매길이 그리고 ..自領中至袖口.. 즉 화장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단령의 크기는 '上'의 단령의 총길이를 살펴보면 <그림 9>에 나타나는 동상은 4척이며, <그림 11>에 보이는 동상은 4척3촌5푼이며, <그림 13>에 나타나는 동상은 4척2촌5푼이다. '衣'의 단령의 총길이는 <그림 3>에 보이는 조선인의는 4척1촌이며, <그림 5>에 나타나는 동의는 4척1촌, <그림 7>에 보이는 동의는 3척9촌이다. 화장에 있어서 <그림 9>에 보이는 동상은 3척6촌5푼이며, <그림 11>에 나타나는 동상은 3척7촌, <그림 13>에 보이는 동상은 3척7촌5푼이고, <그림 3>에 보이는 조선인의는 3척4촌, <그림 5>에 나타나는 동의는 3척4촌. 그리고 <그림 7>에 나타나는 동의는 3척4촌으로 '上'의 단령이 '衣'의 단령보다 다소 큰 반면 <그림 9>의 동상만 '衣'의 단령들보다 작다. 이에 의하면 단령의 총길이는 3척9촌(118cm)에서 4척3촌5푼(131cm)에 분포되어 있으며, 화장은 3척1촌(94.5cm)에서 3척7촌5푼(114.6cm)에 해당된다<sup>36)</sup>. 이러한 본 『풍공유보도략』에 나타난 단령과 유사한 시기의 출토단령의 총길이는 전박장군묘 출토단령은 127cm, 김위묘 출토단령은 123cm와 134cm, 김학묘 출토단령은 134cm와 137cm이고, 전주류씨묘 출토단령은 126cm이며, 이옹태묘 출토단령은 124cm로 이들의 평균 총길이는 124cm에서 137cm에 분포되어 있어 그 크기가 유사하나 출토단령이 다소 큰 것을 볼 수 있으나 이는 제한된 자료에서의 결과로 앞으로의 연구에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단령의 형태는 <그림 25·26>는 본 『풍공유보도략』에 나타난 '의'와 '상'의 단령의 형태이며 <그림 27·

28>는 15세기 조선의 『악학궤범』에 나타난 단령의 형태이다<sup>37)</sup>. 이처럼 단령은 무의 구성에 따라 두 유형의 공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물에서는 공존의 확인이 어려웠었다. 이에 대하여 박성실은 <그림 25>와 같은 단령은 무부분이 뒤로 접힌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하였으나,<sup>38)</sup> 본 도식이 홍배의 도안이나 고름에 이르기까지 세밀히 묘사된 것으로 볼 때, 뒤로 젖혀진 무의 구성선이 있다면 그 구성선이 묘사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외에 단령의 형태는 옆이 막힌 단령과 옆이 트인 무 즉 트임의 유무에 따른 구분<sup>39)40)41)</sup>에 의한 연구도 있으나, 조선중기 실물인 출토단령을 구성요소에 의하여 유형을 분류할 때 깃과 함께 겨드랑이의 큰 트임이 단령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었다<sup>42)</sup>.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앞의 두 유형의 단령은 모두 트임은 있으나 무의 종류에 따른 두 유형이 공존되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출토단령 가운데 추정연대가 16세기전후로 추정되는 단령은 10여점이 있으며, 그 형태는 무와 소매에 의해서 분류가 가능하다. 무의 구성에 따라서 맞주름의 사각형무구성의 단령은 이옹태(1556-1586), 전주류씨(16C중반), 전박장군(임란전후), 김위(-1593-)묘에서 확인되며, 무가 뒤로 접힌 사다리꼴무 단령은 김학(1567-1631), 김여온(17C), 김원택(1683-1739)의 단령에서 보인다. 피장자의 생졸년도(生卒年)에 의하면 16세기로 추정되는 단령은 대부분 맞주름형 단령인 반면 17세기중반이후로 추정되는 출토지에서 무가 뒤로 접힌 구성의 단령을 볼 수 있었다.

출토단령 가운데 직선배래소매의 단령은 인천 석남동(여)<sup>43)</sup>묘, 조경(여)묘<sup>44)</sup>, 연안김씨묘(여)<sup>45)</sup>, 장기정씨묘(여)<sup>46)</sup>에서 보이는 반면 등근배래소매 단령은 전주류씨묘(남)<sup>47)</sup>, 이옹태묘(남)<sup>48)</sup>, 김위묘(남), 전박장군묘(남,녀), 김여온묘(남)<sup>49)</sup>와 김학묘(남)<sup>50)</sup>에 나타나며 이를 출토지 피장자의 성별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며, 이에 의하면 본 『풍공유보도략』의 도식에 보이는 곡선배래단령은 남자의 것과 일치하며 그 가운데에서도 시기가 앞선 이옹태와 전주류씨의 단령은 배래의 등근부분이 소매중앙에 놓이는 반면 전박장군묘와 김위묘 출토 단령은 <그림 29·30·31>과



〈그림 25〉 진성, 同衣  
풍공유보도략



〈그림 26〉 진성, 同上,  
풍공유보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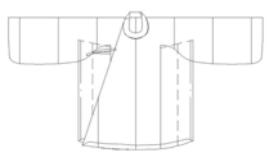
〈그림 27〉 紅綃衫,  
악학궤범



〈그림 28〉 衣,  
악학궤범



〈그림 29〉 전박장군묘단령,  
2009.1월 촬영



〈그림 30〉 전박장군묘단령,  
1994, 조사



〈그림 31〉 김위묘출토철릭,  
1994, 조사



〈그림 32〉 진성,  
同衣,  
풍공유보도략

같이 그 형태가 겨드랑이에서 수구앞쪽으로 곡선화 되는 것으로 가장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철릭은 상의하상(上衣下裳)구성과 주름구성이 특징이며 허리선의 위치와 주름의 크기가 시대를 상정하는 요소이다. 본 『풍공유보도략』에 묘사된 철릭은 소매는 단령과 동일한 곡선소매이며, 허리선은 상의와 하상의 중심에서 치마가 약간 길게 구성된 것으로 보이며 치마의 길이는 알 수 없으나 상의의 길이는 2척5촌(약70cm 정도추정)이며 주름의 크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주름이 앞길에 25개, 뒷길에 24개가 잡혀있다고 하였다. 조선중기이전의 대부분의 출토철릭은 정응두(1508-1572)의 철릭과 청주한씨(중종-선조)묘 철릭, 홍계강묘의 출토철릭, 순천김씨묘(1530-임란이전) 출토철릭이며 그 주름크기는 대부분 0.2cm내외인 반면 김위(-1593-)의 철릭과 김여온(1650- 1670), 김학(1572-1633), 진주류씨묘 등 조선

중기이후 출토철릭의 주름 크기는 2cm에서 3cm내외이다. 이 가운데 주름의 크기가 3cm인 김위묘 갈색명주철릭의 주름은 앞길에 21개 그리고 뒷길에 20개이며, 주름의 크기가 2.5cm인 김위묘 소색명주철릭의 주름은 앞길에 27개 그리고 뒷길에 26개이다. 여기서 앞길의 주름은 걸셨길과 안셨길의 주름의 합을 의미한다. 이는 『풍공유보도략』에 기록된 철릭의 주름개수가 앞에 25개이며, 뒤에 24개인 것은 이 두 철릭에 의하면 주름의 크기가 2.5-3cm내외의 철릭으로 추정되며, 주름의 개수를 측정한 바 『풍공유보도략』에 기록된 것과 같이 앞길의 주름의 수가 뒷길의 수보다 1개 많게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직물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운지문 〈雲地紋, 그림 11〉과 현문사 〈顯紋紗, 그림 13〉와 같이 문직의 표현을 볼 수 있으나, 받침웃인 철릭과 중단에는 무문(無紋) 〈그림 16 · 17〉임을 확실히 밝히고 있어 이

외의 의복들은 문단 혹은 문사 등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유추한다. 즉 겉옷에는 문직(上衣)을 사용한 반면 반침옷(著者)은 평직으로 재질을 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묘사된 단령은 모두 적색 <그림 3·5·7·9·11·13>이었으나, 상(裳)과 철릭 그리고 중단 <그림 15·16·17>은 누런색(蔚黃, 薄祫)으로 달리하였다.

## V. 결언 및 제언

『풍공유보도략』은 풍공(풍신수길)이 남긴 보물들을 1832년에 그림과 설명으로 기록한 일본의 목판본 책이다. 이러한 풍공의 보물은 조선의 선조가 1590년에 보낸 복식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복식들의 기록을 통하여 정치적 의미와 자료로서의 복식사적 의미를 알 수 있었다.

『풍공유보도략』에 기록된 복식은 옥관과 겉옷(단령)과 반침옷(중단, 철릭) 그리고 의례적인 장신구인 패옥과 의례용 치마인 상(裳) 그리고 벼선과 각반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머리장식에서 신발에 이르는 것은 이러한 복식들이 예복의 일습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하며, 특히 홍배나 패옥 등에서 보이는 용문양장식 등은 선물인 복식들이 선조가 수길을 일본의 왕으로 인정하는 상징물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수길이 조선통신사의 파견을 강력히 요구하였던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묘사된 복식가운데 여자의 화관으로 보이는 옥관과 중국의 옷인 견통수슬란(肩通袖膝襯) 등, 남녀의 것과 국내 외의 것이 혼합되어 온전치 못한 일습임을 보여주고 있다. 의복 대부분이 단령인 점은 새로이 등극한 왕에게 보낸 복식이 제복(祭服)이나 조복(朝服)보다 격이 낮은 단령 즉 상복(常服) 중심인 점은 조선에서 보낼 때 예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에서는 격하시켰던 당시 조선의 입장은 함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풍공유보도략』에 나타난 도식은 1590년이라는 절대 연도와 『악학궤범』이후 그려진 조선의 일상복 도식이라는 점, 그리고 묘사에 있어서 형태의 전후모습과 세부구성요소인 고름과 동정의 위치 및 총길이

와 화장에 이르는 정확한 크기와 문양과 문양의 배치에 이르는 세밀한 묘사 등은 흔치 않았던 자료이며 특히 조선중기 실물과의 비교를 통하여 조선중기 신뢰할 수 있는 도식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기록에 묘사된 출토단령은 형태와 크기에서는 유사하였으나 문양이 출토복식에 비하여 격이 높은 용문양과 기린 그리고 사자문과 봉황문이 나타나는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단령의 형태는 겨드랑이에 사각형 무의 구성유무에 따라 2유형이 공존하였으며, 박성실의 추정과 같이 무가 뒤로 접혀진 단령이라면 이러한 단령의 착용이 16세기말(1590)로 앞당겨 진다고 볼 수 있으나 16중반에서 17세기중반에 이르는 출토 단령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과 문양의 장식에 있어서 홍배외에 견통수슬란 양식이 보인 점은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본다. 본 풍공유보도략의 도식에 나타난 단령은 출토단령가운데 현재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소장중인 전박장군묘와 김위묘의 단령과 가장 유사하며 소매의 수구쪽이 등근배래소매 역시 임란이전의 소매임을 볼 수 있었다.

철릭은 앞길의 주름이 뒷길의 주름보다 1개 많게 기록된 철릭의 주름구성이 김위묘 갈색명주철릭과 명주철릭에서도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철릭의 주름구성의 또 다른 측면도 엿볼 수 있었으며, 이를 환산하였을 때 본 『풍공유보도략』에 묘사된 철릭의 주름은 약 2cm에서 3cm 사이의 크기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조선전기의 0.2cm전후의 철릭에서 넓은 주름으로의 변화는 임란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1590년이란 절대연도를 지닌 『풍공유보도략』의 나타난 조선중기 복식의 글과 그림이 연도추정이 애매하였던 임란이전과 이후의 출토복식의 정확한 연대추정을 판별기준이 되는 자료임을 확인함으로써 『풍공유보도략』의 복식사적 의미를 밝힐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1) 이자연 (2002). 朝鮮前期 朝鮮通信使와 일본사신 간의 교역품을 통하여 본 복식문화연구. 복식, 52(4), pp. 65-73.
- 2) 이자연 (2003). 1711年 朝鮮通信使 服飾에 관한 研究. 복식문화연구, 11(4), pp. 541-550.

- 3) 이자연 (2003). 朝鮮의 使節과 日本使臣 間의 交易品을 통하여 본 朝鮮 前期의 織物文化. 복식문화연구, 11(6), pp. 826-834.
- 4) 이자연 (2006). 「동사록」을 통해 본 1811년의 조선통신사 복식과 교환물품.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3), pp. 269-274.
- 5) 이주영, 권영숙 (2007). 조선통신사행도를 통해 본 小童의 역할과 복식. 복식, 57(5), pp. 33-44.
- 6) 신혜성, 박선희 (2007). 통신사(通信使) 기록을 통한 단령(團領) 착용 실태에 관한 연구. 복식, 57(10), pp. 99-111.
- 7) 박성실 (1994). 풍공유보도략에 나타난 宣祖朝 王室服飾. 韓國服飾第12號. 석주선 기념 민속박물관, pp. 105-117.
- 8) 정은주 (2006). 정덕원년(正德元年)(1711) 朝鮮通信使行列會圈 연구. 한국미술연구소 미술사논단, 23, pp. 205-240.
- 9) 이아화 (2000). 조선과 일본의 7년전쟁. 한길사, p. 84.
- 10) 수정선조실록, 21년(1588) 12월 1일-日本國使平義智、玄蘇來聘...일본국 사신 평의지·현소가 내빙하다 조(條). 對馬州太守宗盛長, 世守馬島, 服事我國。時, 秀吉去宗氏, 代以義智, .....議者言: “宜令日本, 刷還叛民, 然後議許通信, 以觀誠否。”上從之  
대마도주 종성장은 대대로 대마도를 맡으면서 우리나라에 복사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풍신수길이 종씨(宗氏)를 제거하고 의지(義智)로 대신하였다. ...조선에서는 의논하여 말하기를, “일본으로 하여금 반민들을 쇄환하게 하고 저들이 성의있게 하는가를 살펴본 뒤에 통신사를 허여할 것인지를 정해야합니다.”라고 하니 임금께서 따랐다.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 11) 수정선조실록, 22년(1589) 7월 1일-日本國平秀吉、平義智、玄蘇等, 刷還本國被擄人金大璣、孔大元等一百十六人...일본국 平秀吉·平義智·현소 등이 본국 포로 김대기 등 116인을 쇄환하다. 조(條)...又縛送叛民沙火同 及丁亥賊倭緊時要羅、三甫羅 望古時羅三 ...仍懇求我使者, 至其國修好 ...“宜遣使報答, 且調彼中動靜, 非失計也。”始許遣使通信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 12) 난중집록 1(亂中雜錄一). 경인년(庚寅年) 만력(萬曆) 18년 봄...春二月. ...以黃允吉爲通信正使. 金誠一爲副. 許箴, 車天輅等充書狀官. 入送日本. 允吉等入闕拜辭. 上設筵賜酒. 命之曰. 慎施. 勉好往好來. 入彼境. 動必以禮. 不可稍有慢易之意. 使國體尊重. 王靈遠播. 在此一行. 卿等無違. 允吉等含命發程. 率麾從二百餘人. 進東萊待風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 13) 정은주. 앞의 글. 부록 표1 조선통신사 과견연표 참고. p. 231.
- 14) 김문자 (2005). 이벤트로서의 朝鮮通信使. 日本歷史研究, 第22輯, pp. 47-58.
- 15) 도산성록: 허례요시의 거점인 후시미성(伏見城)을 이르는 말
- 16) 아미타봉(阿彌陀峰) : 풍신수길(豐臣秀吉)의 무덤이 있는 곳
- 17) 문록(文祿) :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의 일본 연호 (1592~1595)
- 18) 경장(慶長) : 정유재란(丁酉再亂) 당시의 일본 연호 (1596~1614)
- 19) 천보(天保) : 일본 인효천황(仁孝天皇)의 연호(1830-1844)
- 20) 聚樂臺 : 풍신수길(豐臣秀吉)이 사용하던 누각. 일본 교토에 있음
- 21) 岡本豊彦 : 강호(江戶) 후기(後期)의 경도(京都) 사조파(四條派) 화가(1773~1745). 자(字)는 자연(子彥), 호(號)는 이교(鯉喬), 혹은 정신재(澄神齋).
- 22) 高福男 (1986). 韓國傳統服飾史研究 一潮閣, p. 472. 재인용, 박성실. 앞의 책, p. 111.
- 23) 文化財大觀 (1986). 중요민속자료편 (I).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p. 34.
- 24) 김영숙, 박윤미 (2007). 朝鮮朝王室服飾(英王服飾中心).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p. 110.
- 25) 장인우 (1995). 조선중기 출토복식 중 일반복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94-98.
- 26) 청서피(靑糸皮)는 청서피(青黍皮)의 잘못 된 것인 듯 하다. 청서피는 담비 종류의 털가죽이다.
- 27) 전피(獐皮) : 염소 가죽을 이른다.
- 28) 정연식 (2008).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2. 청년사, p. 67. 특히 표범가죽으로 만든 깅개는 여진말로 아다개[阿多介]라 하는데... 아다개(阿多介) : 털가죽으로 만든 요. 호피(虎皮)·장피(獐皮) 등의 털로 만든 요나 방석 등의 깅개를 속칭(俗稱)하는 말.
- 29) 규장각자료총서 금호시리즈의궤편(1994 영인본), 英祖貞純后 嘉禮都監儀軌上. 서울대학교奎章閣, p. 203.  
一房儀軌 粟目秩 건륭 24년 기묘(1759, 영조35) 6월 일 ..萬花方席一立所入 萬花席半長內拱白紋廣席半長絰紫的吐紝三尺紅鼎紝三尺獐皮半令細綯五錢生苧二錢楮注紙一張空石一立穀草一束
- 30) 조선왕조실록. 세조 5년(1459) 8월에 “鞍子一面、諸緣具、黑細麻布二十四、白細苧布二十四、白細綯紝二十四、藍斜皮十張、人蓼一百觔、豹皮心·虎皮邊·獐皮裏坐子一事、豹皮十張、虎皮十張、雜彩花席十張、滿花席十張、滿花方席十張”을 보냈고, 성종5년(1474) 12월 15일 일본국왕에게 보내는 물품 別幅: 正布五百匹、綿布五百匹、白細綯紝一匹、白細苧布壹拾匹、黑細麻布一匹、...豹皮張、虎皮五張、豹皮坐子一坐、雜彩花席一張、滿花席一張、滿花方席一張、鳳文簾席二張、藍斜皮一十張、... 世祖 17卷, 5年(1459)己卯 / 朝鮮國王奉書日本國殿下 ... 付別幅禮物: ...鞍子一面、諸緣具、黑細麻布二十四、白細苧布二十四、白細綯紝二十四、藍斜皮十張、人蓼一百觔、豹皮心·虎皮邊·獐皮裏坐子一事、豹皮十張、虎皮十張、雜彩花席十張、滿花席十張、滿花方席十張、...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 31) 조선왕조실록. 1447년 8월17일 중국에 보내는 물목을 보면, “紫綯紝二十四、綠綯紝二十四、黃柳青綯紝二十四..... 布子一百七十四, 人情紫紝、綠紝各五四, 雜彩花席十張, 邊兒寢席二十張, 細竹扇二百把, 小竹扇一百把, 回蛤二百流, 又一斗, 細蛤二百流, 班蛤一百流, 繡囊兒

- 五箇, 針家兒十五箇, 獅牙兒十流, 葫蘆兒二十流, 虎牙兒五流, 青瓜兒二十流, ...塔士麻一百斤, 昆布一百斤”등 이라고 하였음.
- 遣西陵君韓致禮如京師賀聖節。上率百官拜表如儀。  
韓致禮齋去別進獻物色：紫綿紬二十四，綠綿紬二十匹，黃柳青綿紬二十匹.....布子一百七十匹，人情紫紬、綠紬各五匹，雜彩花席十張，邊兒寢席二十張，細竹扇二百把，小竹扇一百把，回蛤二百流，又一斗，細蛤二百流，班蛤一百流，繡囊兒五箇，針家兒十五箇，獅牙兒十流，葫蘆兒二十流，虎牙兒五流，青瓜兒二十流，...塔士麻一百斤，昆布一百斤....〈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 32) 이자연 (2003). 앞의 책, p. 549. ...의례용과 주요 행사 시의 의복을 공복인 단령을 착용하거나, 조복(朝服)의 경우도 흥배가 달린 단령에 양관(梁冠)만 착용하는 약식으로 조선에서의 조복과는 달리하였다
- 33) 이은주 (2005). 김여온묘의 출토복식 분석 길침승홍배 와 함께하는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국립안동대학교박물관, p. 141.
- 34) 포를 착용하였을 때 착장자의 원손과 오른손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표현하였다.
- 35) 윤진영 (2008). 신경유의 靖社功臣像과 17세기 전반기 武官胸背 圖像. 韓國服飾, 제26호, 단국대학교 선주선 기념박물관, pp. 122-125.
- 36) 위키백과 페이지 시대(일본어: 明治時代, めいじじだい) 혹은 명치시대는 일본의 시대 구분의 하나이다. 1868년 10월 23일부터 1912년 7월 30일까지를 가리킨다. 日本では明治時代に1尺=(10/33)メートル(m)と定められたので、1寸は(1/33)メートル、すなわち約3.03センチメートル(cm)となる。본 글이 작성된 1832년 유사시기로 이 책에 준하였다.
- 37) 樂學軌範(성종 영인본, 1972). 卷之九, 冠服圖說 한국 고전총서 II, 大提閣
- 38) 박성실 (1994). 앞의 책, p. 112.
- 39) 김미자 (1980). 중국의 단령에 대한 연구. 복식, 3, pp. 47-65.
- 40) 이은주 (2005). 조선시대 백관의 時服과 常服 제도 변천. 복식, 55(6), pp. 38-50.
- 41) 신혜성, 박선희 (2007). 통신사(通信使) 기록을 통한 단령(團領) 착용 실태에 관한 연구. 복식, 57(10), pp. 99-111.
- 42) 장인우. 앞의 책, p. 104.
- 43) 김미자, 송미경 (2005). 출토복식의 고찰 인천석남동 회묘 출토복식.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술총서2, pp. 110-190.
- 44) 고부자, 박승원 (2003). 조경묘 출토복식 연구. 조경묘 출토유의. 서울역사박물관, pp. 46-126.
- 45) 송미경, 박진영 (2005). 연안김씨 묘 출토복식에 관한 연구. 연안김씨 묘 출토복식. 경기도박물관, pp. 190-271.
- 46) 이은주 (2000). 출토복식의 유형과 조형적 특징. 포항 내단리 장기 정씨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안동대학교 박물관, pp. 32-62.
- 47) 송미경, 박진영 (2006). 전주류씨 합장묘 출토복식. 경기도박물관 학술총서, pp. 114-171.
- 48) 이은주 (2000). 이응태 묘의 연습구에 대한 조형적 분석. 안동 정상동 일선문씨와 이응태 묘 발굴보고서. 안동대학교 박물관, pp. 211-241.
- 49) 이은주 (2005). 앞의 책, pp. 38-113.
- 50) 송미경 (2007). 김학(金撫) 합장묘 출토복식 연구. 김학 합장묘 출토복식 안동김씨문온공파. 경기도 박물관 학술총서, pp. 148-283.